

# 호남 지역 불심 모아 '초파일' 봉축 잔치

### 호남지역 봉축 일정 확정발표...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불기2557년 호남 지역 봉축일정이 확정됐다.

부처님오신날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2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와 각 지역 대표사찰, 신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세부 행사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의 봉축기간동안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봉축위는 봉축행사가 시작되는 4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전북도지사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탑에 점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각 지역 주요도로에는 가로연등이 걸리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선전홍보탑이 세워진다.

5월 1일에는 임실지역으로 이전하는 35사단 세병호에서의 마지막 연등제가 개최된다.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에는 덕진공원에서 전북어린이 큰 잔치와 전북불교합창제가 열린다. 또 천태종 주관 하에 불교문화 한마당이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5월 9일에는 덕진공원에서 대학생 채식 요리대회와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찰음식 전시회와 체험전

이 개최된다. 5월 11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5000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이밖에 각 지역 군법당과 교도소, 복지시설등에서 자비나눔 봉축프로그램이 진행되며 5월 25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전북봉축위원회 원행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

주요도로 가로연등 비치

유동인구 많은 곳 홍보탑

사찰음식, 다문화 체험전 눈길

자비나눔 '모악축제'로 마무리

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각 지역별 다양한 다양한 봉축행사와 불교계 잔치가 벌어진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둔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일)는 4월 27~28일 양일간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제7회 순천 등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4월 20일 순천역 로타리에서 점등탑을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시작해 5월 6일 순천문화

### 봉축 일정표

| 날 짜       | 내 용                 | 장 소            |
|-----------|---------------------|----------------|
| 4월 20일    | 전북도 봉축점등식           | 전주종합경기장        |
| 5월 1일     | 봉축연등제               | 35사단 세병호       |
| 5월 4일     | 전북어린이 큰잔치, 전북불교합창제  | 덕진공원           |
| 5월 9일     | 대학생 채식요리대회, 사찰음식전시회 | 덕진공원           |
| 5월 11일    | 전북 연등축제             | 전주시청 노송광장      |
| 5월 25일    | 청소년 모악축제            | 각지역 군법당 및 복지시설 |
| 4월 27~28일 | 제7회 순천등축제           | 순천 조례 호수공원     |
| 4월 20일    | 순천 봉축점등식            | 순천역 로타리        |
| 5월 6일     |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 순천문화예술회관       |
| 5월 12일    | 강진 봉축법요식            | 강진 아트홀         |

예술회관에서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6월 23일 헤민스님의 '힐링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제7회 순천 등축제에는 4월 27일에 유치원,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백일장·사생 대회가 펼쳐지고,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댄스, 노래, 악기 경연대회인 B-POP 축제가 개최된다. 시민들이 산책하는 아간에는 강변에서 불교영화가 상영돼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28일에는 조례 호수공원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행사의 백미인 불교문화예술제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봉축법요식과 함께 점등식, 대동놀이한마당(서울 연등축

제 진행팀), 탐돌이, 평화기원 풍등 및 빛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비빔밥 2013그릇 무차만발공양, 불교문화 경연대회가 행사장에서 열린다.

청자의 고장 강진도 5월 12일 강진아트홀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제등행진 등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강진불교사암연합회장 해중 스님(용문사 주지)은 "작은 군에서 봉축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들의 작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며, "봉축행사가 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동구불교협 회장에 만효 스님 취임



단체기를 이양받아 흔들고 있는 신임 회장 만효 스님.

광주동구불교협회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제5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동구불교협회는 3월 30일 광주 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제5대 회장 만효사 주지 만효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지암 스님(세심정사 주지),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동참했다.

취임법회는 법요식에 이어 경과 및 약

력보고, 공로·감사패 증정, 입막사, 회기 이양, 취임사, 입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만효 스님은 취임사에서 "광주지역 중심인 동구불교의 발전과 대중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대 임원진은 회장 만효 스님과 함께 수석 부회장 연광 스님(증심사), 무등 스님(전통사), 법성 스님(법연정사), 총무부장 호산 스님(무유사), 재무부장 수연 스님(연화약사사)으로 구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모래가 흐르는 강' 광주서 인기

불교계 대표적 환경지킴이인 지음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3월 28일 전국에서 개봉된 가운데 광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래가 흐르는 강>은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 중인 지음 스님이 경북 영주댐 건설에 따른 내성천 변화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연출한 73분의 영상 기록이다.

광주극장에서 하루 3차례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개봉 첫날부터 광주·전남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신도와 불자, 시민,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렸다.

고흥총림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과 주지 진우 스님, 백양사 신도 50여 명도 4월

1일 광주극장을 찾았다. 지선 스님은 관람 후 "70~80년대의 토목산업 위주 가치관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며 "아름다운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진우 스님도 "영화를 보면서 가슴 한 칸이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면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면 우리도 훼손된 자연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영화관람에는 지음 스님과 각별한 인연으로 알려진 전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내장사, 석전 스님 부도탑 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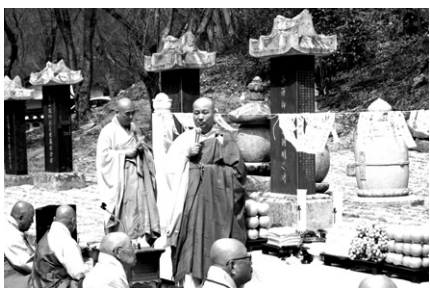
정음 내장사(주지 지선)는 4월 5일 내장사 부도전에서 '부종수교 화엄종주 석전당 영호대종사 지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전계사 해남 스님,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재덕 스님, 재근 스님,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을 비롯한 석전 스님의 후학 100여명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석전 스님께서 임적하신 내장사에 스님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웠다. 2011년 4월 선운사 운영위원회에서 탐비와 부도를 건립할 것을 결의해 석전 스님의 행적과 자료에 대한 수집을 마치고 부도와 탐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석전 스님의 입적하신 내장사에 부도 및 탐비가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 하자"고 말했다.

이날 제막된 석전 스님 탐비는 풍도사 전계대화상인 해남 스님이 비문을 지었다.



부도탑 제막식에서 소감을 말하는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은 1870년 전북 완주군 초표면 조사리서 출생해 1886년 고성 신계사에서 금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10년 만해 스님 등과 이회관의 매종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임제종을 받기했다. 1919년 이종욱과 함께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국민대회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한성임시정부 발족에도 참여했다.

1929년 조선불교승려대회서 교정(敎正)으로 선임됐으며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 교장으로 선임됐다. 1948년 정음 내장사서 세수 79세, 범람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미륵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체험 진행

나주 미륵사(주지 월인)가 10여 년 동안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4월 6일 미륵사에는 다문화가정 30여 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문화체험을 겸한 봄 나들이 행사가 개최됐다.

전남 나주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500여 세대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와 육아, 한국문화습득이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전체 가구수에 20~30% 육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이날 행사에는 광주향교 성균관여성유도회 광주본부에 소속된 전문사범들이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도왔다. 이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한복체험, 전통예절, 행다시연, 떡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시조장, 사량무, 민요)을 함께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서툰 동작으로 절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진지한 모습이 엿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결혼예복을 입고 전통문화체험을 한 다문화 가족들의 모습

처음으로 전통결혼식 신부 체험을 한 보검호영(21, 캄보디아)은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지만, 가정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지는 못했다"며 "절에 오니 개나리 꽃도 너무 아름답고, 전통결혼복장을 하게 되어 즐거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개최한 월인 스님은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송광 정심원 전북현대 청소년축구팀과 협약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과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의 청소년 클럽팀인 전주 영생고와 김제 금산중 축구팀이 3월 24일 자원봉사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생고와 금산중 40명의 축구선수들은 230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송광정심원 하는 정원에 나무심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충성하고 정감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이철근 전북현대 단장은 "선수로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인성과 상생의 나눔활동에 비중을 두고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심원 우용호 원장은 "금산중과 영생



고 축구부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나누며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마음도 한층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의 원불(願佛) 정성껏 내손으로 조성하기**

높이 49척 감로사 미륵부처님 불상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법인을 증득하리라"

## 총담스님 탄신 백주년 소신열반 15주년 기념개원 법회

불상은 불교신앙의 상징이며 예배의 대상입니다. 32상 팔십중효의 기록한 부처님의 존상은 우리 중생들을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하고 오체투지로서 예경토록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존상은 깊은 신심으로 기도 정진하고 고도로 숙련된 불도에 의하여 정성껏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내고 외국에서 염가로 수입해오며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이 포함된 자재로 대량생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뜻한바 있어 본사에서는 한국불교 천철백년 역사에서 최초로 총담(冲澗)스님께서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고(火中生蓮), 육신으로 등공(肉身騰空)하신 호명산 감로사(승가사)도량에서 평생을 현대 미술 조각에 정진하여 오신 비움(空白)의 조각가 노재승(盧載昇:성신여대 명예교수 미술대학 학장 역임) 교수님의 크신 신심과 원력에 힘입어, 교수님과 조각가

남상연 님(홍익대 조소과 졸업 춘천 소양강치녀, 유관순 열사 조각)의 지도로 우리의 원불은 내손으로 직접 조성하여 호명산 감로사 도량에 모시는 뜻깊은 불사를(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법인을 증득하리라) 눈도허공이요 귀, 코, 입, 뿔 도 허공이요 육근과 육식이 청정하고 안온하리다)

십이광불 아미타불을 청송엄불하며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무생법인(無生法認)을 증득하신 총담대종사 탄신 100주년과 열반 15주년을 맞이하여 봉행코저 하오니 사부대중 선남선녀께서는 동공 발심하여 이 불사가 원만 회향토록 하여 주실것을 앙망 하옵니다.

불기 2557년 4월 10일  
원불(願佛) 내손으로 조성하기 불사 추진위원회  
호명산 감로사 승가사 주지 이지성 합장  
총담화상문도회 회장 원산 최목원 합장

**증명 : 헤초 대종사(한국불교태고종 종정) · 인곡 대종사(한국불교태고종 승정) · 인공 대종사(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개원 법회(특강) 및 조성일시 :**  
불기 2557년 4월 18일 음력 3월 9일(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셋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삼년간

■ **장 소 :**  
· 호명산 감로사 만화당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 감로사 (네비게이션 검색어 감로사)  
(7호선 상봉역 : 경춘선전철 청평역에서 하차 감로사 행 차량운행 10시 부터)  
· 서울사무소 포교원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05(연목동) 승가사

■ **접수전화 :** 감로사 031)584-0117  
승가사 02)2292-3418 / 010-3722-3418

■ **이 메 일 :** ljk3418@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 227038-55-001448 감로사  
국민은행 546901-01-031687 승가사  
원불은 조성한 분의 이름과 발원을 새기어 호명산 감로사 도량에 영구히 모십니다.